

“보훈병원 비상진료 유지·의료인력 관리 만전을”

강정애 장관-보훈병원장 간담회 비상진료체계 점검·애로사항 청취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보훈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의료복지공단 하유성 이사장 직무대행과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장 등과 보훈병원의 진료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

항을 청취했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맡고 있으며, 총 175명의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배치·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이탈한 중앙보훈병원에선 지난 3월 25일부터 군의관 2명과 공보의 1명이 파견돼 지원근무를 하고 있다.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서 전원환자의 진

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 부산보훈병원에선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에 따라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상진료 운영과 관련된 보훈병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비롯한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의료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훈병원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병원 진료가 불편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훈위탁병원 명단이 보훈부(www.mpva.go.kr)와 보훈공단(www.bohun.or.kr)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보훈부는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 등이 보훈병원과 상이하므로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지)청 또는 보훈병원에 문의한 후 이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의료개혁특위 “구체적 의대 정원 논의 계획 없다”

노연홍 위원장, 이해관계 조율 중점 상반기 내 4개 과제 로드맵 발표

25일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

전 열린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새로운 이슈나 쟁점이 발굴될 경

우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의대 정원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지만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예정됐다. 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과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으로 공개되며, 공론화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주제별로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기는 1년이다. 연합뉴스



서울~부산 2시간17분...KTX-청룡 시승 25일 오전 광주송정역 승강장에 용산행 'KTX-청룡' 시승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 제작된 KTX-청룡은 기존 KTX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졌고 개별 창도 적용됐다. 최고 시속은 320km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보훈복지의료공단, 후원금 전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4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배려하우스’ 사업 후원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역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더 나은(Better) 집을 만들어 간다는 ‘배려하우스’ 사업은 △쿨 루프(Cool-Roof·태양광을 반사하는 페인트 칠하기) △벽체 단열 △노후창호교체 등 에너지 효율·성능을 개선해 냉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탄소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이다.

공단이 작년엔 지원한 8가구를 대상으로 한라대학교 건축학과와 연계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구별 기밀성능이 기존 대비 평균 40% 좋아져 난방비가 25%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 에너지소요량은 평균 15~20% 감축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회공헌 기금을 늘리고 지원 가구 수도 8가구에서 12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모집할 계획이다. 임채무 기자

ADD ‘미래국방기술 포럼’ 개최 우주통신·사이버 보안 등 논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4일 대전ICC 컨벤션에서 산·학·연·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국방기술 포럼: Open CoE(Center of Excellence)’를 개최했다.

행사는 1개 정책포럼과 3개 기술포럼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책포럼에서는 김태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 박기호 ADD 국방인공지능(AI)센터장, 박영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기획본부장 등이

나서 지난 5년간의 미래국방기술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했다. 향후 첨단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이어 기술포럼에서는 △우주통신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추진전략 △AI 기술의 국방적용 전략 △MUM-T 전투체계 운용을 위한 무인체계 사이버 보안을 세부 주제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AI 기술에 대한 현실적 이해·인식과 국방 분야 실태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서현우 기자